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11, 소아시아와 그리스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1회차 소아시아와 그리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이의 땅 밖으로 멀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왔고 동부 지중해를 탐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초점이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특히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처음 세 장은 우리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방문하여 그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 장소를 살펴보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는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을 말하는 일종의 개요 방식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도에 평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이사랴(이 지도에는 없지만 므깃도라고 표시된 바로 아래)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터키 지역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을 훨씬 넘어 마침내 로마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곳이 아나톨리아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초점은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제국이나 이 맥락에서 이집트 왕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나톨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광범위한 지리적 설명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제국 이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히타이트인과 한국인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기록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 분 동안 하게 될 일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 아나톨리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수역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앙 아나톨리아 고원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중해입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Paul과 다른 사람들이 여행할 때 건너야 하거나 돌아다녀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선 그리스나 엘로스 로 밝혀진 곳으로부터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을 분리하는 것이 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헬레스폰트(Hellespont)로, 기본적으로 엘로스(Elos) 로 연결됩니다.

Elos 로 가는 다리 ,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 즉 싸웠던 주요 전투의 관점에서 보다 최근의 역사를 안다면 갈리폴리와 다르다넬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기에 작은 수역인 마르마라 해(Sea of Marmar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나톨리아의 남쪽, 지중해, 서쪽, 북쪽을 둘러싸는 수역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동일한 지도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육지에 초점을 맞춰 지형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는 폰틱 산맥(Pontic Mountains)이 있습니다. 폰토스(Pontus)라는 용어가 신약성서에 여러 번 등장하므로 북부 해안을 따라 폰토스 산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또 다른 범위의 산, 즉 타우루스 산맥(Taurus Mountains)이 있는데, 남쪽과 동쪽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중앙에는 위쪽으로 솟아오른 고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랏 산과 다른 산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나일강과 같은 강에 관해 언급하자면, 우리의 주요 강은 북쪽이나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여기서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 주변의 수역과 지형을 모두 얻었습니다. 역사의 종류에 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 지역을 통제했거나 확실히 통로로 사용했던 종족 그룹과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복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그룹은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결, 특히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히타이트라는 용어를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타이트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히타이트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집트와의 히타이트 조약 중 일부는 조약 형식과 계약 형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의입니다. 그러나 그 연대, 특히 약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의 번성기를 주목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머리 기호에는 프리기아(Phrygia), 트라키아(Thrace), 고대 아시리아 제국(Old Assyrian Empire) 등 여러 종족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란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메모해 두세요. 약 5번의 강의 전, 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기원전 1200년경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격변적인 일인 후기 청동기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의 중단과 한동안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는 Hurrian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 같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더 친절하거나 더 부유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히타이트와의 충돌에 주목하여 첫 번째 지도로 돌아가면 해당 아나톨리아 지역에 히타이트와 후르리아라는 이름이 모두 표시됩니다. 구약 시대의 역사와 평행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연대순으로 더 나아가면, 구약성서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 특히 페르시아 통치자로 등장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유감스럽게도 유대인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우리는 Darius와 Xerxes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 이야기의 관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 전체를 그리스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그로 인한 모든 놀라운 대결을 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배치하세요. 방향은 바뀌고 나중에는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알렉산더 대왕을 시작으로 아나톨리아를 가로지르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인들이 뒤를 이어 로마인들이 천천히 아나톨리아를 건너 레반트 전체, 지중해의 동쪽 국경, 그리고 그 너머까지 정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이제 1세기에 나타난 일부 지역, 특히 지역과 지방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도에 화살표나 원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고맙게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관점에서 중요한 키프로스 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로 여기에서 갈라디아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경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과거에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주목하고 싶고,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를 헬레스폰트를 건너 기본적으로 동남부 유럽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카이아(Achaia)는 그리스의 다른 이름이다.

괄호 안에 그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가야가 우리 지역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 인쇄된 것은 아니지만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바로 여기 이 지역이고 고린도는 보시다시피 잠시 후에 도시로 돌아오는데,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사이에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거나 아카이아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리의 라벨에 따라 그 지협이 흐릿하거나 가려져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큰 반도와 넓은 육지가 있다면, 작고 작은 연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것은 지협이라고 불리며 우리는 그 양쪽에 있는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 켈그레아 와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와 함께 그들이 정치, 종교, 여행, 상업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도시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지도입니다. 이번에는 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도시 중 일부를 여기에 배치해야 합니다.

동쪽부터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인쇄가 약간 괜찮다면 여기 있습니다. 오론텔스강의 안티오크라고도 불리는 안티오크.

이 기간에 약 16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료를 읽을 때 그 중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긴 안티오크야.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신자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있었고, 이곳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우코스 왕조의 후손들의 왕조 이름 중 하나인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많은 무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 첫 번째 곳이에요. 에베소,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 역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 하나로서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던 장소로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도 그 편지 중 하나의 수신자이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Sardis는 지도에는 없지만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을 복도라고 생각하면 사르디스는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인들이 이 아나톨리아 고원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헬레스폰트를 건너고 다음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Sardis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트로아스, 화살표는 트로아스의 위치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 것이며 그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입니다. 빌립보, 바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서쪽과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아에서 조금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사도행전에 언급된 도시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뢰아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경전을 연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들을 언급하는 동시에 에게해 주변의 중요한 장소들에 아주 좋은 그룹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지도에는 없지만 화살표 끝이 있는 곳 바로 위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 고린도를 타고 북동쪽으로 조금 가세요.

나는 코린트 자체를 차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시는 내가 말했듯이 전략적으로 그 지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 목록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대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한 여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 강의 중 하나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이사랴 유적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된 초점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방향으로의 복음의 여정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랴와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 땅의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와 헬레니즘 유대인 공동체의 일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땅을 넘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장, 안디옥과 시리아에서 방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티오크, 오론텔스강의 안티오크, 시리아의 안티오크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가 이 동부 지중해 지역 전체로 진출했을 때 실제로 그들이 중심이 된 곳에 안디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숲은 갈릴리에 있는 로마의 수도였지만 그곳은 안디옥의 통제하에 잘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 주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곳에서 몇 가지 건물을 지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는 안디옥 건축 지역에 매우 많이 관여했습니다.

안디옥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에는 그 맥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도시들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울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1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한 후, 우리는 키프로스과 갈라디아 교회들로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지도입니다. 이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행에 비해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땅 너머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트로아스에서 그들은 아나톨리아 고원 전체를 거쳐 트로아스까지 간 다음 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를 거쳐 아테네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광범위한 2차 선교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몇 단계를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의 일부였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그는 확실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몇 년간 투옥된 후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갔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마치고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로 갔다가 여기로 올라와 팜필리아를 거쳐 갈라디아의 이 지역에 나타나는 도시로 약간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인 리스트라, 데르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기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회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도시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진출이 금지됐다. 그래서 그 주변에 트로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 출신의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르러 온 사람이 루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을 돌아다니며 아테네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잠시 후 아테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2차 선교여행의 막바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시아 본토, 아니 미안하지만 아나톨리아라고 해야 할 곳에서 건너왔을 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헬레스폰트를 건너 마케도니아와 그 도시들로 향했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과 서쪽을 접하고 있는 두 도시입니다. 지협 동쪽에 겐그레아, 서쪽에 리카이움.

그런데 지금은 저기 건너편으로 운하가 있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생각엔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그런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방법으로 되돌아갑니다.

우아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그 이상으로 우아하고, 음, 그 이상의 건물에 대한 약간의 느낌을 주기 위한 사진 몇 장입니다. 다음은 빌립보 포럼의 유적입니다. 그럼 다시 헬레스폰트를 횡단한 후의 여행 궤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가 올 것이다. 사진은 없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기둥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테네로 향합니다.

아, 이것에 관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과 전체 입구 세트, 여기 프로필라이아, 저기 사원, 그리고 여기

아래 전체 극장 단지가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것은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슬프게도 수백년 전에 거기에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 전체 구조로 상상해보십시오. 잠시 후에 이것의 작은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망원 렌즈 덕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La Cabitos가 교회와 함께 꼭대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Areopagus 또는 Mars Hill에 대한 설교.

그 위에 서서 사실, 요즘 거기에 가면 엄청난 인구가 있는 아테네 시 전체를 볼 수 있고, 그가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설교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필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과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화성 언덕이라고 불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바로 여기 포럼의 일부와 일반적으로 테세온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조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치에서 잠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구조를 주목하세요. 파르테논 신전의 아주 축소된 버전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수세기 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5세기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수세기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아테네의 철학적 담론 등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고린도,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아래에 주요 도시가 있고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베마(bema)라 불리는 곳, 높은 곳, 연단, 원할 경우 심판이 행해지는 큰 연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갈리오인 총독이 있다면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공공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법령을 내리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폴로 신전은 거기에 있는 다양한 것들 중 하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혹적인 발견 중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건에 대한 연대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비문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의 사본이나 필사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여섯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연대를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됩니다: 서기 5152년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바울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있는 것처럼 그는 다시 방문할 것이고,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베소로 갈 것입니다. 이제 앞뒤로 약간의 상호 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그가 없는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을 받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고 계속해서 코린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주고받는 편지도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신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를 조금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사도행전 19장과 바울의 에베소 체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키레토스 거리는 성직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곳은 행렬의 거리, 다양하고 잡다한 종교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따라 사원, 분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 부분에는 도서관으로 알려진 셀수스 도서관(Library of Celsus)이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는 인구가 엄청났고 추정에 따르면 아마도 현재 이 특정 도서관에 보관된 12,000권의 책에 해당하는 추정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소를 걷는 일종의 관광객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의 극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Beit Shan에 있는 이스라엘의 극장을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상 관객 수는 7,000명이 될 수 있고 약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극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큰 극장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극장입니다. 그리고 극장이 공개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고 종종 선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르테미스 숭배 전체가 복음의 도래로 인해 거의 약화되고 전복되었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이 문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치는 에베소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깝습니다.

거기 또 다른 극장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밀레도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그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극장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나는 이 극장에서 발견한 또 다른 것에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에게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리스어를 읽으면 이 단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테 세바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뒤에 꽤 읽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지만 장소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라는 풀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그 자리에 새겼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간에, 나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놔둘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빠르게 끝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과 그 확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일부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목록을 작성하고 위치를 찾은 다음 그 중 몇 군데를 간략하게 방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읽으면 이 일곱 교회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교회 중 일부에서 발견된 것 중 일부는 요한이 처음 세 장에서 실제로 말한 것과 실제로 맞물리기 때문에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적하고 다시 아시아를 상기시키고, 헬레스폰트를 상기시키고 건너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Carl Rasmussen의 Holy Land Photos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스미르나(지금의 이즈미르), 현대의 이즈미르(Izmir)가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버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아디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댓글을 달고 Sardis의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로 가지 않고 라오디게아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바로 북쪽에는 에어로폴리스 라는 곳이 있고, 바로 남쪽과 동쪽에는 골로새가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위치에 관해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세요. 주로 그림이지만 성경 본문에서 읽은 내용과 여기에서 약간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트라야니움,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아, 저건 트라야누스 황제 이후의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버가모 유적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유적지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도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에서 양피지를 만들려는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에베소의 도서관을 훨씬 능가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Trajanium 외에도 Asclepion 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산 근처 안토니아 요새에서 발견된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와 그 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유의 장소가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 전체가 이곳 버가모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기초만 볼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만 볼 수 있는 이 제우스 제단이 요한이 제우스와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와 관련된 제우스 제단, 계시록 2장. 빠르게 사르디스로 이동합니다.

Sardis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지도에서 기억하실 수 있듯이 사르디스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일종의 북향, 서향 으로 소아시아와 터키, 아나톨리아를 횡단하고 서쪽으로 가는 노선의 주요 지점이자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대한 또 다른 징후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저 아크로폴리스에 오르면 마치 난공불락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도시가 있고 거기에 있던 사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히에라폴리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지만 이곳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에 스파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온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멀리서 보면 흰색과 솟아오르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온천이라는 생각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뜨겁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로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재건되지 않은 라오디게아 극장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다. 여기 라오디게아에 서 있다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건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장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작은 창문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쪽에서 산을 바라보며 돌아다닌다면, 그 산에서

남쪽으로 물을 가져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산이라면 계절에 따라 시원한 물, 샘물, 아마도 얼음이 녹아서 나온 물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정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덤지도 축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입에서 토해 낼 것입니다. 여기 북쪽의 온천과 시원한 물의 잠재력 사이에 바로 이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뱉어내고 싶은 일종의 어두운 것들일 뿐입니다.

자, 완전히 발굴되지 않은 극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바로 동쪽이자 약간 남쪽에 있는 골로새 극장에서 있습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은 성경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매우 우아한 문화적 사물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들은 1세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상류층에서 헤롯이 문화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유혹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이러한 건축적인 것 중 일부, 때로는 개념적인 것까지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 Didyma라는 곳에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를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의 크기와 대조적으로 여기 기둥에 있는 기둥 기초를 주목하세요.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입니다.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장소로 대중을 압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그 장소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문화적 영향력을 예루살렘에 가져왔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 사이에는 항상 세계관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멈춘다.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1회차 소아시아와 그리스입니다.